

제목: 예수 믿는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면 허공 치는 기도를 한다
**Title: If the Purpose of Believing in Jesus Is Not Clear,
Prayer Becomes Like Beating the Air**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The purpose of believing in Jesus is to enter heaven.
The Creator God came into the world in human flesh, bore
all human sin, and died on the cross.**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Jesus, who opened the way of salvation for mankind, is God
Himself.**

**The only way to heaven is to obey His word and repent of
disobedience so that our sins may be washed by His blood.**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사탄과
그의 종개들인 악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거짓말은 한 분 하나님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입니다.

**Satan and his evil spirits are the ones who hinder people
from believing in Jesus, the only Savior.
One of Satan's lies that hinders faith is to divide the one God
into two or three.**

이런 거짓에 속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Those who are deceived by this lie cannot know God correctly and cannot have firm faith.

To enter heaven, we must believe in the only God, obey His word, and repent of disobedience.

귀신들이 성경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Because demons hinder us from believing according to Scripture, we must always drive out Satan and demons in the name of Jesus.

To overcome Satan, the goal of faith must be clear.

믿음의 목표와 목적을 모른 채 사탄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면, 사탄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비웃고 공격합니다.

If a person commands Satan to leave without knowing the goal and purpose of faith, Satan will not leave; rather, he will mock and attack that person.

사탄을 쫓아내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목표를 확실히 붙잡고, 그 목표를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To cast out Satan, we must first repent and receive the Lord's forgiveness.

We must firmly hold the goal of faith and resist Satan, who tries to obstruct it.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The goal of our faith is to believe in the Creator God and obey His word.

It is also to drive away Satan, who hinders our obedience.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The purpose of Jesus shedding His blood was to forgive all the sins of those who repent and to bring them into heaven.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총을 쏘면 되겠습니까?

군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침략하는 적군을 향해 싸워야 합니다.

Can a soldier on the battlefield shoot anywhere without knowing who the enemy is?

A soldier must have the clear goal of defending his country and must fight against the invading enemy.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표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All God's people must become warriors who resist Satan.

We must set the goal of believing in God alone and obeying

His word, and we must drive out the demons that hinder God's work.

믿음의 목표 없이 사탄만 쫓아내려는 자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피곤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째 목표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Those who try only to cast out Satan without the goal of faith will gain no fruit; they will become weary and discouraged.

The first goal of our faith is to repent of sin and enter heaven.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둘이나 셋으로 나누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교리를 따랐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Complete repentance is the most important goal of faith. We must repent of dividing the one God into two or three, and we must repent of following human doctrines more than the word of God.

“<사도행전 19:14-16>: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Acts 19:14-16>: A group connected with Sceva, a Jewish chief priest, tried to do this. But the evil spirit answered that it knew Jesus and knew Paul, but did not recognize them. Then the demon-possessed man overpowered them, and they fled from the house wounded and naked.”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의 아들들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When Paul preached the gospel, many miracles occurred and evil spirits were driven out.

Seeing this, the sons of the priest thought that they too could cast out demons.

그들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맞아 피를 흘리고 급히 옷이 벗겨진 채 도망쳤습니다.

They commanded the demon to leave, but the demon-possessed man overpowered them and beat them severely.

They were wounded and fled in haste, even without their clothes.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Human strength cannot overcome demons.

When a person who obeys God's word and repents commands in the name of Jesus, demons are driven o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마태복음 6:7-8>: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Matthew 6:7-8>: When you pray, do not babble like pagans, who think they will be heard because of many words.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성경이 가르치는 목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것저것 구하는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A person who does not pray for the goal taught in Scripture, but asks for many things according to fleshly desire, is making a babbling prayer.

바른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When we pray and act for the right goal, God supplies everything we need.

“<마태복음 6:12-13>: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Matthew 6:12-13>: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믿음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goal of faith is to believe that God alone is Lord and Savior.

To believe in God means to obey His word and repent when we sin.

둘째 목표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The second goal is to forgive our neighbors' faults, do no evil to them, and do good.

When we first forgive others, the blood of Jesus forgives our sins.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 하면 귀신은 비웃고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에게 “너는 내 종인데 어떻게 나를 쫓아내려 하느냐” 하며 오히려 그를 압도합니다.

If a person who refuses to forgive others tries to cast out demons, the demons will laugh and will not leave.

They will say, “You are my servant; how can you cast me out?” and will overpower him.

“<마태복음 6:21-23>: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Matthew 6:21-23>: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If your eyes are healthy,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if your eyes are bad, the darkness within is very great.”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영혼 구원에 사용할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소망과 관심이 항상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When we use the material things God has given us for the salvation of souls, our spiritual eyes become bright. Our hope and concern remain fixed on heaven.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 길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A person with good eyes does not stumble over obstacles on the road.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Likewise, one whose spiritual eyes are bright will not fall into Satan's snare.

Those who love money more than God are spiritually blind.

이런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므로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의 삶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They decide everything according to fleshly desire, and therefore fail and perish.

The life of a person whose spiritual eyes are dark becomes oppressed and painful.

“<이사야 1: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Isaiah 1:15>: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even when you offer many prayers, I will not listen, for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눈을 가리시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No matter how much we pray for blessing, the Lord will not receive such prayer if we do not repent of sin.
He hides His eyes from them because their hands are full of blood.**

남의 생명을 해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고, 아벨의 억울한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The hands of those who harm another person's life or wound another person's heart are full of blood.
Cain hated Abel and killed him in the field, and Abel's innocent blood cried out to God from the ground.**

모든 죄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입니다.

**Every sin is an enemy of the Lord.
When we sin and do not repent, a wall of sin rises between the Lord and us.**

그 담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막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 죄악의 담이 무너집니다.

**That wall blocks fellowship with Him.
Only through repentance is the wall of sin broken down.**

그 담이 사라질 때 주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When it is removed, the Lord's life and blessing flow to us.

“<고린도전서 9:26-27>: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1 Corinthians 9:26-27>: Therefore I do not run aimlessly, nor do I fight like one beating the air. I discipline my body and make it serve, so that after preaching to others I myself may not be disqualified.”

목표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Do not live a life of faith without a goal.
The goal and purpose of faith is to believe in the Creator God, obey His word, and enter heaven.**

인간 교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Human doctrine teaches that there is no need to obey the Lord's word and no need to repent.
This opposes the will of the Lord.**

거짓 교리가 믿음의 목표를 잃게 만듭니다.
목표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False doctrine causes people to lose the goal of faith. Those who have lost the goal may pray hard, but their prayers are like beating the air.

이런 교인들은 항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끝은 지옥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Such churchgoers remain under Satan's rule, and their end is hell.

Because they believe in Jesus without repentance, the problem of their sin cannot be solved.

육신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To avoid being dragged by the desires of the flesh, the apostle Paul disciplined his body every day and made it submit to the word of Jesus.

He strove so that after preaching to others he himself would not be rejected.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인간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Today there are not many pastors who are spiritually awake. Most believe and teach human doctrines.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이 인간 교리가 되어 예수 믿는 순간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쉬운 방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The systematic theology taught in seminaries has become human doctrine, teaching that the soul is saved the moment one believes in Jesus.

Thus many people believe in Jesus in an easy way.

목사들은 자기 육신과 명예를 위해 목회하고, 세상의 축복과 명예와 즐거움을 위해 예수를 믿게 합니다.
믿음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Pastors minister for their own flesh and reputation, and people believe for worldly blessing, honor, and pleasure. The purpose of faith has been changed.

이런 목사들은 교인들까지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Such pastors end up leading even their church members toward hell.

“<로마서 7:14-15>: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Romans 7:14-15>: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 am unspiritual, sold under sin.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but what I hate, I do.”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육체의 불의한 욕구 때문에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하려는 육체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Even the apostle Paul, who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lived by faith, struggled deeply because of the unrighteous desires of his flesh.

He grieved that he did not do the good he wanted, but the evil he hated.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생각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To obey God's word, he disciplined the thoughts of his flesh every day and made them submit to the Lord's will.

This is the limitation of humans who still live in the flesh.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애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 마땅히 애써야 합니다.

Even Paul strove in this way to obey the Lord's word.

We also must strive to obey.

누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Who can claim to surpass Paul's faith?

“<로마서 7:22-23>: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Romans 7:22-23>: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my members, fighting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captive to the law of sin.”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강하여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The inner person is our soul, and the outer person is our flesh.

The thoughts of the flesh are strong; they overwhelm the heart and drag it under sin.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죄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Human determination or willpower alone cannot defeat the power of sin.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overcome sinful thoughts by His power.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더욱 회개할 마음과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When we repent, we receive the Holy Spirit; and when the Spirit fills us, we gain a greater desire to repent and greater strength to obey.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Romans 1:17>: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When we repent, the Holy Spirit comes.

He helps us understand the word and leads us to deeper repentance and obedience.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믿음의 실천이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When we obey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e become
more filled with the Spirit.**

In the spiritual realm, practicing faith leads to greater faith.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약해지고 회개하기 싫어지며 순종하기 싫어집니다.

If we do not repent, the opposite happens.

**The fullness of the Spirit weakens, and we no longer want to
repent or obey.**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순종과 회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있던 믿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When we strive to keep faith, the Spirit fills us more and our
faith grows stronger.**

**If we do not strive for obedience and repentance, even the
faith we had will be taken away.**

“<누가복음 19:26-27>: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Luke 19:26-27>: The master said that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but the one who has nothing will lose even what
he has. Those who refused his reign were to be brought and
destroyed before him.”

인간 교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다.

Human doctrine dislikes God being King and opposes His word.

It places man in God's position and ignores Scripture.

이런 교만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십니다.

이런 교인들은 처음에 받았던 믿음까지 빼앗기고 스스로 멸망합니다.

The Lord judges such proud people and casts them into hell. Such churchgoers lose even the faith they first received and destroy themselves.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Romans 8:1-2>: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Those who are in Jesus are not condemned and do not go to hell.

However, many churchgoers misunderstand this word.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They think that merely attending church means they are in Jesus, but that is not true.

To be in Jesus is to believe that the Creator came as Jesus and to obey His word.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은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Churchgoers who disobey God's word and do not repent are outside Jesus.

But when they repent, their sins ar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and they enter Jesus again.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인간 교리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Whenever we sin, we must repent and receive forgiveness.

Those who believe human doctrine do not repent, so they remain outside Jesus.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교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순간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 안으로 옮겨집니다.

Churchgoers who do not live a life of repentance are under Satan's power.

Yet no matter how many sins they have committed, the moment they repent they are transferred from Satan's authority into the authority of Jesus.

“<로마서 8:6-8>: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Romans 8:6-8>: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The flesh is hostile to God and cannot submit to His law. Thos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Even if people attend church for decades, if they live according to fleshly thoughts and do not repent, they are still not truly believing in Jesus.

이런 교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Such people cannot enjoy the life and peace Jesus gives; they remain in hostility toward Him.

육신에 속한 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People who belong to the flesh do not submit to God's will. They must truly repent, receive the Holy Spirit, and cast off fleshly thoughts by the Spirit's power.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속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립니다.

Even a perso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ay sin momentarily.

But such a person quickly recognizes the sin and turns away from it.

육신의 옛 생각은 항상 새롭게 된 생명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생각과 세력들이
떠납니다.

**The old thoughts of the flesh always hinder the renewed life.
Whenever they arise, if we command in the name of Jesus,
evil thoughts and powers depart.**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증거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증거됩니다.

This is the power of the Spirit and the evidence that He is with us.

The kingdom of God is not proven by words alone, but by real power.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We must always drive out the power of sin and death by the authority of Jesus' name and enjoy the Lord's peace.
Through our victorious life, the kingdom of God must be expanded.**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Romans 8:26>: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hen we do not know what to pray,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oo deep for words.”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When we repent and receive the Holy Spirit, He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beyond words when we do not know what to pray.

The Spirit leads our weak prayers in the right direction.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Romans 1:17>: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는 회개할 때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In the gospel, God’s righteousness is revealed and makes us righteous.

This means that when we repent, we are forgiven, receive the Holy Spirit, and are led by Him on the path of life.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계속 회개의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지옥에 갑니다.

Those who obey the Spirit's guidance and continue a life of repentance go to heaven, but those who give up midway go to hell.

“<누가복음 19:26-27>: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Luke 19:26-27>: The master said that whoever has will receive more, but whoever has nothing will lose even what he has. Those who rejected his reign were brought and judged before him.”

주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The Lord gives talents to each person.
Refusing to use them means rejecting the Lord as King.**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Faith must keep growing.
It grows when we repent and strive to obey the Lord's will.**

믿음을 성장시킨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행한 대로 상급과 집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Those who grow their faith enter heaven and receive rewards, a dwelling, and a crow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있던 믿음까지 빼앗기고 지옥으로 갑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만 다니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if faith does not grow, even the faith they had will be taken away on the last day, and they will go to hell.

Faith does not grow because people merely attend church and do not live in repentance and obedience.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 Corinthians 10:13>: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ki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ill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endure it.”

예수를 믿을 때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When we believe in Jesus, trials and sufferings come. Their purpose is for the Lord to make us recognize our disobedience and unrepentant life, and to lead us into obedience.

고난의 목적은 지옥 길로 가는 사람을 천국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suffering is to turn those who are going toward hell back to the way of heaven.

주님이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십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When the Lord allows trials, He keeps them within what we can bear.

If we hate the suffering we can endure and blame God, our faith cannot grow and we cannot enter heaven.

“<잠언 19:2-3>: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Proverbs 19:2-3>: Desire without knowledge is not good, and hasty feet miss the way. A person’s own folly ruins his way, yet his heart rages against the Lord.”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이루려는 소원은 굽은 길입니다.

A desire that comes from wrong knowledge does not fit God’s will.

A desire to accomplish evil is a crooked path.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삶은 지옥으로 가는 굽은 길입니다.

주님이 천국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실 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선한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A life without repentance is a crooked road to hell.

When the Lord disciplines them to return to the way of heaven, they instead blame the Lord and refuse to follow the good path.

징계를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인간 교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Those who hate discipline and refuse repentance are following human doctrines.

“<로마서 5:3-4>: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Romans 5:3-4>: We also rejoice in sufferings, because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Those who understand God's will will rejoice even in suffering.
This is because passing through trials is training for
entering heaven.**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The way to pass through suffering safely is to recognize
one's faults, repent, and turn from sin.**

**Through suffering, we come to understand the pain of
others and gain a heart that forgives their faults.**

이런 훈련을 통해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Through this training, a narrow heart becomes broad.

“<베드로전서 4:17-18>: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 Peter 4:17-18>: It is time for judgment to begin with God’s household; and if it begins with us, what will become of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God? If the righteous are scarcely saved, where will the ungodly and the sinner appear?”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Judgment beginning with the house of God means that God judges the sins of churchgoers.

In the church, wheat and chaff are mixed together.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쭉정이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The wheat are those who obey God’s word; the chaff are those who disobey and do not repent.

Churchgoers who live by fleshly desire while practicing formal religion have false faith.

경건을 연습하고 항상 회개하는 성도들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로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Even believers who train themselves in godliness and always repent cannot obey perfectly.
That is why Scripture says they are scarcely saved by the Lord's mercy.**

경건하기를 연습하지 않고 늘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How can churchgoers who do not train themselves in godliness and always act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s be saved and enter heaven?

“<누가복음 18:29-30>: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Luke 18:29-30>: Truly, anyone who has left home, spouse, brothers, parents, or children for the kingdom of God will receive many times as much in this age, and eternal life in the age to com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모나 형제나 집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가족과 재산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Those who leave parents, siblings, or home for the kingdom of God receive many times more in this life and enter heaven.

This means that our love for God's kingdom must be greater than our love for family and possessions.

“<디모데전서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 Timothy 5:8>: Anyone who does not provide for relatives, especially for one’s own household,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unbeliever.”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Scripture says that a person who claims to believe in Jesus but does not care for his family is worse than an unbeliever. This may seem opposite to the previous word, but it is not.

두 말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Both passages have the same context.
We must preach the gospel within God’s word, and we must care for our family within the standard of God’s word.**

만약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불신자의 자녀보다 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If family members try to stop us from believing in God, we cannot accept that demand.
Yet children who believe in God must honor their parents even more than unbelieving children do.**

그렇게 할 때 부모가 감동을 받고 자녀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표를 잃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When they do this, their parents may be moved and come to believe in Jesus through their children.
This is a life of faith that does not lose its goal.**